

까마득한 미래 銀河系를 둘로 갈라 장대한 우주전쟁이 수행되고 있었다.

은하계에 널리 알려진 26살의 아름다운 여류시인 리드라·윈의 그 천재적인 암호〈해독〉의 재주를 산 동맹군의 플래스터장군은 침공군측의 수수께끼의 통신 〈바벨-17〉의 해독을 그녀에게 의뢰했다.

과거에 세번이나 동맹군의 요소에서 침공군의 파괴활동이 감행됐으며 그때마다 수수께끼의 통신 〈바벨-17〉이 방수됐다. 무엇인가 관련된 것으로 보는 동맹군이 그 解讀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했다.

마침내 리드라는 〈바벨-17〉이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언어임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다음의 공격목표 암세지벌의 무기창임을 알았다.

늦을세라 그녀는 피수와 같은 모습으로 整形한 파일럿, 靈體人등 異樣한 승무원들과 함께 스스로 선장이 되어 우주선 램보호를 타고 암세지벌로 향발했다.

그런데 이미 침공군의 마수는 램보호의 내부에까지 미치어 超靜止공간으로 옮겨가는 중도에 폭발이 일어난다. 선내의 누군가가 이 파괴를 기도한 것.

리드라는 갖가지 언어의 〈圓〉을 뜻하는 말로부터 좌표를 찾아내서 궁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암세지벌에 도착한 리드라들은 무기창을 관장하는 벨·도르코남작의 초청으로 만찬회에 참석했다.

그때 〈바벨-17〉이 수신되어 남작은 파괴공작원으로 만들어진 인조인간 TW-55의 손으로 회식석상에서 암살되고 만다.

만찬회는 엉망이 되고 리드라는 가까스로 램보호에 도착한다. 그러나 램보호는 리드라가 모르는 사이에 긴급 발진명령을 받고 있었다. 침공군의 함정이었다. 우주선은 超靜止공간을 향해서 비행을 계속한다.

그후 램보호가 하마트면 新星속으로 빠져들

어갈뻔한 위기일발을 구해낸 것은 세이도·심라는 私掠船의 제벨·타리크였다. 그들은 동맹측에 동조하는 海賊이다.

그리고 그들의 근거지는 짙은 방사능帶인 스페셀롤리斷層으로 불리는 超靜止공간속에 있다. 리드라는 그 선내에서 제벨의 부관이며 기억상실한 범죄자 부처를 알게 된다.

리드라는 수수께끼에 찬 그를 두려워 하면서

바벨-17

BABEL-17

사뮤엘 R. 딜레니 (SAMUEL R. DELANY)

徐光云

〈韓國SF作家클럽會長〉

도 어쩐지 끌려들어가는 자기를 의식하게 된다.

다음으로 적이 습격해올 곳이 동맹행정부임을 알아차린 리드라는 제벨에 부탁하여 동맹행정부까지 데려가주도록 했다. 그러나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그들은 침공군의 거대한 戰艦과 만나 우주전이 전개된다.

리드라는 우주로 떠난후에도 〈바벨-17〉의 解讀에 전념하여 차츰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바벨-17〉은 짧은 문장속에 방대한 정보량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바벨-17〉로 생각하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思考를 할 수 있다. 리드라도 〈바벨-17〉을 이해해감에 따라 이따금 〈바벨-17〉이

의의 언어가 더딘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부처가 〈나〉와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않은채 얘기하는 것을 리드라는 수상하게 여긴다. 즉 그가 기억상실이전에 쓰고 있던 언어에는 〈나〉나 〈당신〉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한 언어라면 〈바벨-17〉 밖에 없지 않겠는가!

리드라는 〈바벨-17〉를 사용해서 부처와의 접



촉을 시도한다. 그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해서 그녀의 텔레퍼식한 촉수가 뻗친다. 그리하여 텔레퍼시共鳴을 일으켜 두사람의 의식은 융합해 버린다.

가까스로 적의 戰艦을 파괴한 리드라들은 곧

장 동맹행정부에 도착하지만 리드라와 부처의 의식은 연결된 채였다.

리드라의 主治医 마르크스-톰와르바는 그가 사전에 예측하여 준비해 둔 〈바벨-17〉의 자료를 구사하여 연결된 두사람에게 〈바벨-17〉의 矛盾命題를 부여한다.

〈나〉라든가 〈당신〉을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마치 컴퓨터언어와 비슷하며 컴퓨터에 해당능의 모순을 넣어주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과 같은 論理로 처리한 것.

〈바벨-17〉은 매우 콤팩트한 언어이며 온갖 점에서 유연성을 갖고 단어의 짜임새에 따라 적합한 뜻의 세트룰 수없이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만 언어에서 볼 수 있는 애매함이 전혀 없다.

기억을 되찾은 부처는 과거를 돌이키기 시작했다. 자기가 벨·도르코남작의 아들이며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첩보원으로서 침공군국 내에서 아버지가 만든 TW-55와 같은 인조공간을 조작하여 파괴활동을 하던 중 발각되어 처포된 후 적의 비밀무기 〈바벨-17〉을 이식받은 사실등을 털어놓았다.

이어 리드라는 말했다. 〈바벨-17〉은 그 언어속에 적파괴의 프로그램이 깃들여 있어 그래서 부처는 〈바벨-17〉로 말미암아 부하인 인조인간에 파괴명령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벨-17〉은 이를 배우는 자에게 분열성격을 일으키며 램보호내에서 일어난 파괴공작은 모조리 리드라 자신이 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리하여 〈바벨-17〉의 수수께끼는 해명되고 전쟁은 끝나게 됐다.

작가와 작품

새뮤얼 R·딜레니(Samuel R·Delany)는 1942년 4월 1일 뉴욕의 할렘에서 태어났다.

브론크스·하이스쿨·오브·사이언스에서 수학을 전공, 17살때 쓴 소설로 장학금을 받는다. 그후 시티·칼리지에 재학중 수학자, 음악가, 작가의 어느 길을 택하느냐로 고민끝에 텍사스만에서 새우어선을 타기로하고 포크·싱거로서 유럽을 방황하기도 했다.

결국 아내이자 시인인 마릴린·허커가 전에 근무했던 에이스·북스사에서 처녀장편(The Jewels of Aptor)를 출판, 작가의 길을 걷게 됐다.

〈화염의 大王〉〈트론론 3부작〉등 수많은 작품을 작품을 발표했는데 1966년 〈바벨-17〉을 발표하면서 네폴리賞을 받아 일약 SF계에서 부동의 지위를 쌓아올렸다.